
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(임의자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233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0. 7. 21.

대표발의자 : 임의자 · 박대수 · 송언석

김형동 · 김석기 · 김병욱

김성원 · 이명수 · 추경호

이종성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·소기업 사업주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어 보호하고 있음.

그런데, 해당 사업장에서 무급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중·소기업 사업주의 가족 등 친족이 업무상 재해를 당하는 경우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비용지출로 인한 경영난과 생계의 위험 등이 발생할 수 있음.

이에 중·소기업 사업주와 동거하는 친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24조).
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4조의 제목 중 “사업주”를 “사업주등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후단을 삭제하며,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4항(종전의 제2항) 및 제5항(종전의 제3항) 중 “제1항에 따른 중·소기업 사업주”를 각각 “중·소기업 사업주등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(종전의 제4항) 중 “제2항”을 “제4항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7항(종전의 제5항) 중 “중·소기업 사업주”를 “중·소기업 사업주등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8항(종전의 제6항) 중 “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중·소기업 사업주”를 “이 법의 적용을 받는 중·소기업 사업주등”으로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중·소기업 사업주와 동거하는 친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해당 사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은 공단의 승인을 받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른 중·소기업 사업주 및 제2항에 따른 중·소기업 사업주와 동거하는 친족(이하 이 조에서 “중소기업 사업주등”이라 한다)은 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할 때 근로자로 본

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[illegible]

② 제1항에 따른 중·소기업
사업주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
급 사유인 업무상의 재해의 인
정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
다.

③ 제1항에 따른 중·소기업
사업주에 대한 보험급여의 산
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고
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
는 금액으로 한다.

④ 제2항에 따른 업무상의 재
해가 보험료의 체납 기간에 발
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
바에 따라 그 재해에 대한 보
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
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⑤ 중·소기업 사업주에 대한
보험급여의 지급 등에 필요한
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
다.

⑥ 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
을 받는 중·소기업 사업주의
보험료의 산정, 보험 가입의 신
청 및 승인, 보험료의 신고 및

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
적용할 때 근로자로 본다.

④ 중·소기업 사업주등-----

-----.

⑤ 중·소기업 사업주등-----

-----.

⑥ 제4항-----

-----.

⑦ 중·소기업 사업주등-----

-----.

⑧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중·
소기업 사업주등-----

<p>납부, 보험 관계의 소멸, 그 밖 에 필요한 사항은 보험료징수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</p>	<p>----- ----- -----.</p>
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